

전남 쌀 수출 성장세 ‘뚜렷’…5년간 3배 증가

10월 14만9천t 전국 수출량 81%
유럽·중앙아 중심 인기몰이 지속
30억 규모 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

전남 쌀 수출 물량이 최근 5년간 약 3배 증가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쌀은 2021년 해외 원조를 포함한 수출 물량이 5만1천t이었으나 올해 10월 말 기준 14만9천t까지 증가했다.

수출액도 2024년 4천631만달러에서 올해 들어 10월까지 5천476만달러로 늘었다. 전체 신선농산물 수출액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55.3%에서 67.4%로 확대됐다.

2024년 전남 쌀 수출량은 전국 13만7천t 중 81.1%로 1위를 기록했다. 현재 31개국 이상에 수출되고 있으며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전남도의 긴급 쌀 수출 마케팅 추진과 판



전남 쌀 수출 물량이 지난 10월 말 기준 14만9천t까지 증가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담양군농협 통합RPC에서 열린 '운수대통 쌀 20t 영국 첫 수출 선적식'이다. <전남도 제공>

족 지원 확대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전남도는 쌀값 폭락 위기 극복을 위해 수출 미곡종합처리장(RPC) 등을 대상으로 포장재와 파레트 등 기자재를 지원하고 해외 전남 상설판매장을 통한

현지 홍보를 집중 추진했다. 시·군, 농협과 협력해 몽골, 오스트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카자흐스탄, 영국, 아랍에미리트(UAE) 등 신규 시장을 개척해 소비증 확대에

도 성공했다. 특히 2024년은 유럽 시장 진출이 본격화됐다. 오스트리아는 전남도와 유럽 1위 아시아식품 유통업체인 편아시아가 3천만달러 규모의 수출

확대 협약을 한 이후 2024년 2156t을 수출했다. 프랑스는 148t, 네덜란드는 143t, 카자흐스탄은 80t, 영국은 39t, 아랍에미리트 34t으로 신규 수출이 빠르게 확대됐다. 향가리와 체코도 수출이 처음 이뤄지며 시장 저변이 넓어졌다.

지난 12월에는 담양군농협 통합RPC에서 '운수대통 쌀 20t 영국 첫 수출 선적식'이 열리며 전남 쌀의 유럽 수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은 한국식 식품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는 유망 시장이다.

전남도는 쌀 수출 확대를 위해 ▲전남쌀 수출 안전성 제고사업 1억5천만원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적불금 37억5천만원 ▲수출 기자재·컨테이너 내륙 운송료 지원 등 30억원 규모의 경쟁력 강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유럽은 품질 기준이 매우 엄격하지만 전남 쌀은 맛과 품질, 안전성에서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며 "더 다양한 국가로 수출을 넓혀 'K-Rice'가 곧 전남쌀'이라는 인식을 세계 시장에서 확고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12월 전통주 ‘숲향벼꽃 술도깨비’

90년 전통 비법 100% 국산원료 사용
풍미·청량감 조화 프리미엄 생막걸리

전남도는 12월을 대표하는 전통주로 깔끔·상큼·개성 가득한 생막걸리인 까치설의 숲향벼꽃 술도깨비(탁주 5.8%·사진)를 선정했다.

술도깨비는 한번 맛보면 도깨비에 훌린 것처럼 솔이 술을 들어간다고 불여진 이름이다. 또한 숲향벼꽃은 장흥 산자락의 표고·헛개에서 퍼지는 은은한 금의 향과 벼꽃의 곡물향이 어우러져 한 모금이면 숲속 향기가 떠오르는 막걸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단일 발효국이 아닌 특허 등록된 표고균 사체배양미, 인삼을 활용한 약용국, 개량누룩 등을 배합하는 비법으로 빚은 까치설만의 특허 받은 우리진 산뜻한 프리미엄 생막걸리”라며 “전남은 발효국을 사용해 풍미와 청량감이 조화롭다.

숲향벼꽃 술도깨비는 국가지정 술 품질인증 금색 마크(나형)를 획득한 제품으로 금색마크

는 주원료와 국(麴)의 제조에 사용된 농산물이 100% 국내산이라는 의미의 인증이다.

또한 2019년 우리쌀워드미페스티벌 전통주 품평회 최우수상, 2019-2024년 남도 우리술 품평회 막걸리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며 품질과 맛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숲향벼꽃 술도깨비의 제조사인 '까치설'은 1930년부터 4대째 90년 동안 전통주를 빚어오는 명가다. 숲향벼꽃 술도깨비 외에도 청화동(약주), 장흥 맛깔 등동주(탁주)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숲향벼꽃 술도깨비는 90년 전통의 비법과 현대의 맛이 어우러진 산뜻한 프리미엄 생막걸리”라며 “전남 전통주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국내외 판로 확대를 통한 전통주 산업 육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스마트 축산 패키지 보급 희망 농가 모집

축종별 맞춤형 ICT장비 제공
26일까지 행정복지센터 접수

전남도는 17일 “축산 농가의 노동력 부담 경감과 생산성·경쟁력 향상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시·군·읍·면·동서 2026년 스마트 축산 패키지 보급사업 희망 농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은 약취·분뇨 관리, 탄소 저감, 생산성 향상 등 축산업 현장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목표로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에서 선정된 ICT 기업이 주도해 각 농장에 적합한 스마트 축산장비를 설치·보급하고 장비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실시간 연계·분석할 시스템을 구축, 농가가 객관적 데

터 기반의 농장 운영을 하도록 돋는다.

특히 축산물품질평가원 공모를 통해 선정된 25개 업체가 축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장비 세트를 구성해 축산농가에 제공함으로써 ICT 장비 도입을 촉진하고 농가의 경영 효율성과 사양관리 능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참여를 바라는 농가는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축사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축산물품질평가원, 농식품부 심사를 거쳐 내년 1월께 이뤄질 예정이다. </양시원 기자>

농협은행 광주본부, 전화금융사기 현장 대처 빛났다

청원경찰 기지로 고객 1천600만원 지켜

NH농협은행 광주본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기민한 판단과 신속한 대응으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해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NH농협은행 광주본부는 17일 “최근 광주영업부에 근무 중인 박모 청원경찰이 전화금융사기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주광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진>

박모 청원경찰은 지난 11일 광주영업부를 찾은 70대 남성 고객이 약 1천6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을 문의하자 이상 징후를 감지했다. 평소 고령 고객의 고액 현금 인출은 전화금융사기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던 박 청원경찰은 인출 목적과 자금 사용처를 차분히 확인하며 상담을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고객이 특정인의 지시에 따라 금하게 현금을 마련하려 했다는 정황을 포착했고, 이는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수법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박 청원경찰은 고객을 안심시키며 인출을 잠시 중단하도록 설득한 뒤, 즉시 110에 신고해 경찰의 현장 출동을 요청했다. 신속한 조치 덕분에 고객은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았고 사기 범죄 역시 사전에 차단됐다.

NH농협은행 광주본부는 앞으로도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내부 교육과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고령 고객과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장 직원과 청원경찰 간 협업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금융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박모 청원경찰은 “평소 고령 고객의 고액 인출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해 왔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많은 고객이 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재영 NH농협은행 광주본부장은 “일선 현장에서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준 직원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를 전한다”며 “NH농협은행은 앞으로도 금융사기 예방 활동을 강화해 고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금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친환경 수목장

- 아름다운 자연
- 365일 관리
- 가족구성 가능
- 사용기한 없음
- 전문 이장
- 광주시청 20분

수목장 · 묘지 이장 · 장례

상담: 062-449-4446